



언제까지 기다리나니?

* 6/11(목) 스가랴1-8장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

스가랴

1:1-6 하나님께 돌아오라

1:7-6장 환상들

A. 세계적 변화에 대한 환상

1장a 세상을 돌아보는 말들

1장b 네 뿔과 네 일꾼들

B. 회복과 임재에 대한 환상

2장 측량줄을 지닌 사람

3장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옷

4장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

C. 심판과 정결에 대한 환상

5장a 날아가는 두루마리

5장b 예바 속 여인

6장 4대의 마차

7-8장 금식, 회개 촉구

7장a 사절단, 금식에 대해 물음

7장b 선지자의 응답

8장a 하나님, 시온 번성케 하실 것

8장b 강건하라, 금식이 축제가 될 것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

9-11장 회복과 파멸

9장 시온의 회복

10장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11장a 나무와 목자들의 슬픔

11장b 목자 이야기

12-14장 전쟁, 정결, 재창조

12-13장a 전쟁과 정결

13장b 거짓선지자/목자의 제거

14장 왕에 대한 찬송

참고도서

두란노 How 주석

엑스포지멘터리 주석

한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

(Lesen und Verstehen, 헤르만 만케)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오랫동안 회복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퇴색되고 삶과 신앙에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12)”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실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우리에게는 때로 기다림의 순간이 옵니다.

‘어떤 때는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려운 신앙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불의한 자들과 권력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멀쩡했습니다(1:11-12).

통치하는 제국만 달라질 뿐, 처지는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내’ 기준에는, 약속의 성취가 너무 더뎠습니다(1:12).

‘내’ 기준에는, 건축하는 성전도 너무 초라했습니다(4:10).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시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마치 하나님과 별개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신앙은 여전히 옛 적 조상들과 같았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상, 내가 그린 공동체 상,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방법들, 지도자 상.

그들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답지 밖의 일이 생기면 그들은 불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출애굽 광야시대로부터 그들의 조상을 사로잡아 온

‘영적인 질병’이 스가랴의 시대에도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1:3-4).

유대인들은 특정 인물을 통해, 자기 시대에, 모든 약속이 성취/완료되길 바랐습니다.

1차 귀환을 이끈 세스바살에게, 그가 사라진 이후에는 스룹바벨에게 원대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다윗 계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당해야 할 만큼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4:9).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각의 사람을 쓰시지만, 그들은 도구입니다.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사역과 사람을 배치하고 조율하며,

기한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당신의 통찰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약속’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강대국이나 실권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1:21).

모두들, 조용히 하여라! 숫!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여라.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 (메시지성경 2:13)

하나님은 새로운 순(싹)으로(3:8)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그분의 시간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혜안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오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건설현장에 합류하십시오.

스가랴는 ‘회복’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향해 그들이 함께 일궈갈 단계들을 말합니다.

❶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주의 백성과 함께 해야 합니다(1:16-17, 2:1-5, 10-13).

❷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1:14-17, 2:1-5, 12, 6:9-15)

❸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3:8-9, 6:9-15, 9:9-10),

❹ 하나님과의 언약을 간증할 것입니다(8:8, 13:9).

❺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3:1-5, 9, 13:1, 14:20-21)

❻ 회복된 공동체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시고(2:1-5, 8:4-5, 9-13, 9:17, 10:1)

❼ 세상을 정복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1:15, 18-21, 2:7-9, 9:1-8, 13-16, 10:3-7, 12:2-9, 14:1-15)

❽ 그들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기쁨일 뿐 아니라(8:18-19)

❾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들이 정복할 열방도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1, 8:20-23, 9:7, 10, 14:16-21)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4:6).